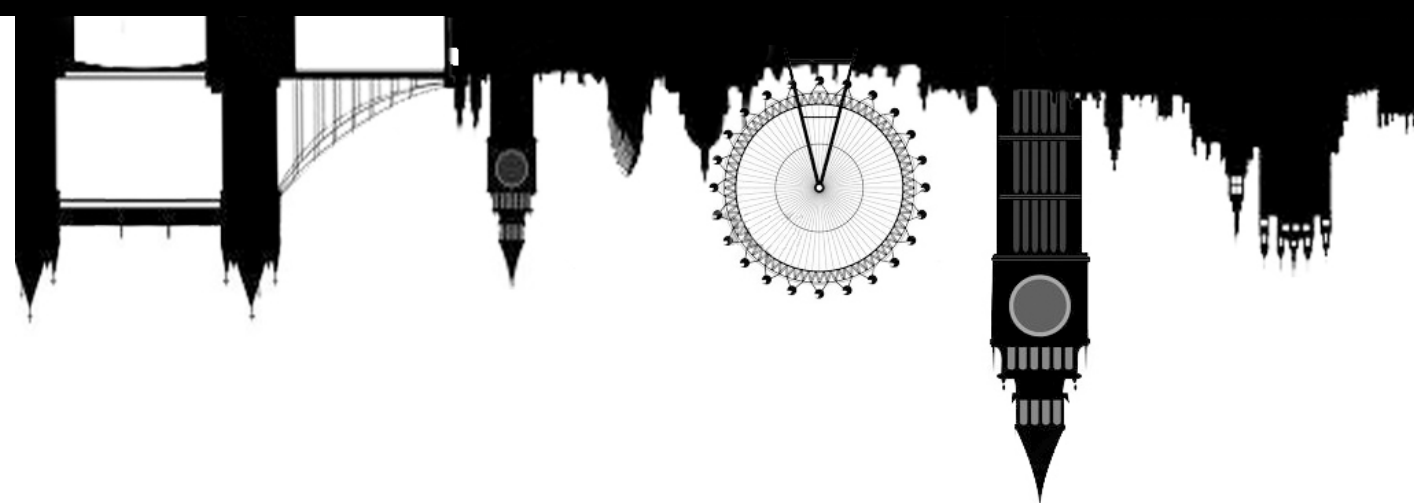


수능에 나올 논리 for 2018학년도



그림장이수영국어

[4~7] (가)는 학생들이 발명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이고, (나)는 이를 참고하여 '학생1'이 '학습 활동' 과정에서 작성한 설명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안녕하세요? 학생 발명가이신 선배님께 궁금한 게 많습니다. 먼저 발명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발명가: 네. 발명은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생각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학생 2: ㉠ 새롭게 생각하여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선배님의 발명품이 궁금해요.

발명가: (발명품을 꺼내며) 네, 이걸 보여 드리죠. 설탕, 소금과 같은 양념을 담은 통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곤란한 때가 많았어요. ㉡ 그래서 통의 뚜껑과 본체를 여러 개로 나눈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통 하나에 여러 가지 양념을 담을 수 있게 말이죠.

학생 2: 간단하면서도 유용하네요. 저도 발명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힘들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알려 주세요.

발명가: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의 주제가 되는 물건을 탐색하며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 보고, 인지 단계에서는 그 물건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학습합니다. 이 두 단계를 통해 주제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발명 단계에서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건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이때 도움을 얻기 위해 기존의 다른 발명품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 1: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발명가: 좋습니다. (가방에서 필통을 꺼내며) 필기구로 말씀드리죠. 여기 연필, 볼펜, 자가 있지요? 필기구를 발명 주제로 정했다면, 체험 단계에서는 필기구만 골라 만지고 분해하며 호기심을 가져 봅니다.

학생 2: ㉣ 그럼 다음 단계에선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겠군요.

발명가: 네, 인지 단계에서는 필구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지요. 다음으로 발명 단계에서는 필기구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아까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한다고 했는데요, ㉤ 이를테면 자가 발전 기능이 있는 손전등에 전자기 유도 법칙이 이용됐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내용을 통해 빛을 내는 볼펜이라는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지요.

학생 1: 그렇군요. 끝으로 미래의 발명가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명가: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선 방법을 찾아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학생 1,2: 네, 감사합니다.

[학습 활동]

1.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발
2. 상호 평가를 통한 고쳐

글장이's comment

6평 때 틀렸던 학생은 자신이 발문을 쉽게 넘어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분명 기억에 의존해서 답을 골라냈을 겁니다. 평가원의 의도대로!

(나)

학생들은 발명을 어려워한다. 그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쉽게 발명에 다가설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질까?

먼저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라는 발명 주제가 제시되면 자전거를 눈으로 살피고 손으로 만진다. 그리고 직접 자전거를 타 보이기도 하고, 자전거를 분해해 보이기도 하면서 탐색된다.

그 후 인지 단계에서는 자전거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학습한다. 커브를 도는 쪽으로 자전거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원심력 때문이고, 울퉁불퉁한 길을 부드럽게 달릴 수 있는 것은 타이어의 탄성력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서 발명 주제인 자전거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때 자전거를 탔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려 감상문을 써 보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발명 단계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의 개선 방안을 생각한다. 즉 자전거가 아닌, 자동으로 공기가 채워지는 튜브를 참고해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개선 방안을 생각할 때는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

5. 다음은 (가)에 참여한 '학생 1'이 (나)를 쓰기 위해 '학생 2'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가) 와 (나) 를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학생 2: 선배님의 말씀을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했잖아. 어떤 내용을 글에 포함할 거니?

학생 1: 선배님은 _____ ㉠ _____

- ① 발명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셨지. / 나도 발명 도중에 겪었던 어려움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②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점을 찾아보라고 하셨지. / 나는 개선이 필요한 주변 사물의 문제점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③ 모형의 각 단계를 양념 담은 통으로 설명하셨지. / 나는 다른 물건을 이용해 모형을 설명하는 내용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④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셨지. / 나도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내용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⑤ 발명은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지. / 나도 창출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제작, 완성하는 과정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핵심point : 발문과 <보기>를 통해서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한다.

-사고의 흐름-

1. 발문에 '(가)와 (나)를 고려할 때' 라는 말을 통해 (가),(나)가 선지에 '모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2. <보기>부분에 '선배님의 말씀을 활용'한다는 것과 '선배님은~'을 통해서 선지에 (가)부분이 먼저 대응될 것임을 알 수 있다.
3. 선지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앞 문장과 뒷 문장이 각각 (가)와 (나)에 대응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4. 그 다음은 선지의 각 부분의 내용이 맞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6. 다음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나)에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설명문의 끝부분을 쓸 때에는 먼저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 내용**이 지닌 **의의**를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 ①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발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안내가 될 수 있다. /또한 주위 사물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 ②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체험, 인지, 발명 단계**로 이루어진다. /발명 단계 이후에는 체험 단계 이전에 학습한 발명기법을 떠올리며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 ③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주변의 사물들 중에서 발명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면 손쉽게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체험 단계, 인지 단계, 발명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 모형의 단계를 따라 하면 쉽게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 ⑤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떠올리는 **체험 단계**,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인지 단계**, 발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발명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이디어를 구현한 제품을 만드는 적용 단계가 있다.

*핵심point :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인지한다.

-사고의 흐름-

1. 발문을 통해 (나)에 대응하는 문제임을 인지한다.
2. <보기>부분에서 '**중심 내용 요약**'과 '**중심 내용 의의**'라는 단서를 잡는다.
3. (나)에서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찾아본다.
4. 인지한 '**중심 내용**'이 **선지 앞 부분에 '요약'**되었는지 판단한다. (이때, <보기>의 '먼저'와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라는 표현을 통해 선지 앞 부분에 요약이, 뒷 부분에 의의가 대응됨을 알 수 있다.)

글장이's comment

6평 때 틀렸던 학생은 자신이 <보기>에서 '요약'과 '의의'만 단서로 잡지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기계적 학습은 좋지 않습니다!

[8~10] (가)는 학교 신문에 기고한 학생의 글이고, (나)는 (가)를 읽은 후 다른 학생이 같은 신문에 기고한 **반박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학교는 내년도 학사 일정을 수립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름방학 기간을 현행 4주에서 2주로 단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하자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여름방학의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여름방학은 1학기가 끝나고 휴식을 취하면서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아 2학기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여유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여름방학 기간에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외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면 개학 이후에 시작되는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셋째, **학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학교 시설을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일이 2주 이상 걸리는 경우 방학을 활용한다.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면 학교 시설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2학기를 시작하게 되므로 생활이 불편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학교는 학생들이 여유를 갖고 자율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나)

학교 신문에 **여름방학 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글**이 실린 후 학생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그 글에서 제시한 근거들을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한다고 해서 여름방학의 의미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오히려 학기 중보다 학습 부담이 커져서 여름방학 기간에 여유를 갖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2주로 줄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해도 학생들은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개인 체험 학습을 신청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오랜 시일이 필요한 공사는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하고 시급한 공사의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된다. 불가피하게 학기 중에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불편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지난 학기 중 특별실 보수 공사를 하였지만 불편 없이 진행되었다.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업 공백이 줄어들어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학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겨울방학 시작을 앞당길 수 있어 **학년 말의 비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피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인근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학교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은 **수업의 연속성 확보와 학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려면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9. (나)에 사용된 **쓰기 전략**이 아닌 것은?

- ① 여름방학 기간 단축에 대하여 (가)로 인해 촉발된 반응을 제시하고 글을 쓰는 목적을 밝힌다.
- ② 여름방학의 의미가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가)의 주장을 비판**한다.
- ③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가)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 ④ 학기 중 공사가 불편을 초래한다는 **(가)의 주장을 비판**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 ⑤ 학생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절충안을 제시**한다.

*핵심point : (나)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사고의 흐름-

(나)는 (가)를 '반박'하기 위해 쓴 글이다.

이것을 인지하고 선지를 보면 단순한 일대일대응보다 깔끔하게 선지들이 처리가 된다.

글장이's comment

9번은 지문의 발문에서 이미 선지 구성방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문의 발문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세요!

10. **(가)를 쓴 학생이 (나)를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A]를 비판**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학교 시설 공사로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학생의 인터뷰를, 학기 중 공사가 불편 없이 진행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②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체험 학습 일수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 규정을, 학기 중에도 체험 학습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③ 학기 중보다 여름방학 기간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한다는 신문 기사를,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할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④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지만 **학년 말 학사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던 다른 학교 사례를, **[여름방학 기간 단축이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⑤ 여름방학 기간이 2주, 4주인 두 학교 학생들이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기억하는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여름방학 기간과 학습 연속성이 관련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핵심point : 10번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한다.

-사고의 흐름-

1. 글은 (가)의 주장과 근거, 이에 대한 (나)의 반박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나)에 대한 (가)의 재반론을 묻고 있다.
2.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나)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나)의 [A] 부분에 대한 반박이란 점!
3. [A]와 관련된 이야기는 4,5번밖에 없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 그 다음은 평가원이 좋아하는 '주체 비틀기'가 등장한다. [여름방학 기간 단축이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누가 해야 할까? (가) OR (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름방학 기간과 학습 연속성이 관련 있다는 주장]은 누가 해야 하고? (가) OR (나) -동그라미 쳐보세요.
5. 위에서 언급한 주장들을 반박하는 주체는 '(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글장이's comment

*10번을 틀렸다면 발문을 쉽게 지나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세요!
*평가원은 주체와 대상을 비틀어 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언뜻보면 되게 그럴 듯 하거든요.
유념합시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조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경기를 ㉤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준수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때의 대안이 반드시 준칙주의가 아니다.

글장이's comment

발문의 중요성은 그만 말할게요. 이 문제에서 특이점은 '상관관계의 모호함'입니다. 그리고 이 '모호함'을 '지문의 다른 상관관계들'을 통해 해결해야 했죠. 기존의 출제 흐름이었던 상관관계의 일대일 대응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답률이 25%가 나왔던 것이죠. 생각하면서 푸는 수험생과 아닌 수험생을 확실히 구분해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수능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핵심point: 발문에서 요구하는 바를 파악한다.

상관관계의 모호함을 해결한다.

-사고의 흐름-

1. 발문에서는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있다. 이것을 <보기>에서 찾는다.
2.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라는 말에서 '병'이 제안한 것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음을 인지한다.
3. 그 전제 중 하나가 바로 '상관관계'이다. 즉, '기준 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보기>에 제시된 상관관계는 뭔가 이상하다. 기준 금리와 물가 상승률이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가 없다!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상관관계를 굳이 모호하게 제시한 이유가 뭘까? "아, 기준 금리와 물가 상승률 간의 관계를 지문을 통해서 명확하게만 들라는 의도구나" (<보기>의 내용만으로는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없으므로)
4. 지문에 제시된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조합해 <보기>의 기준 금리와 물가 상승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5. <보기>의 '병'이 전제한 다른 조건들까지 고려해 답을 산출한다.